

한국뇌연구원 과기정통부 뇌은행 첫 지정

- 연구용 인체뇌자원 2만5,000여개 확보, 24년 K-브레인넷 개통 -

- 한국뇌연구원(원장 서판길, 이하 뇌연구원)은 한국뇌은행이 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은행’으로 첫 지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.

*뇌연구촉진법에 따라 뇌연구자원 확보·보존·관리·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연구촉진법에 따른 모집 공고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난 1월 한국뇌연구원 소속 한국뇌은행과 더불어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뇌은행,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뇌은행 및 인제대학교 뇌은행을 최종 지정하였다.

- 한국뇌연구원의 산하조직으로 2014년 설립된 한국뇌은행은 2016년부터 권역별 협력병원뇌은행*과 함께 한국뇌은행네트워크(Korea Brain Bank Network, KBBN)를 구축하였으며, 2021년부터 뇌 클러스터** 중앙은행을 담당하고 있다.

*강원대병원, 서울아산병원, 세브란스병원, 전남대병원, 충남대병원, 인제대, 가톨릭대 등 7개소

**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·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구축한 14개 소재 클러스터의 하나

- 특히, 한국뇌은행은 협력뇌은행과 함께 2017년부터 총 2,185명의 기증자로부터 조직, 혈액, 뇌척수액, 요(尿) 및 DNA 등 인체 뇌 연구자원* 2만4,983개를 기증받아 보존·관리하고 있다. 또 2018년 하반기부터 KBBN 포털(<http://kbbn.kbri.re.kr>)를 통해 뇌질환 발병 기전 및 오믹스 분석을 위한 연구용으로 총 1,152개의 뇌연구자원을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.

* 뇌과학, 뇌의약학 및 뇌공학 등 뇌연구의 기반이 되는 정밀의료의 핵심자원으로, 질병의 원인규명, 위험예측, 진단키트 개발, 치료제 개발 및 다양한 융합연구에 활용되는 자원을 말함

- 앞으로 한국뇌은행은 연구현장 중심의 뇌은행 운영시스템으로 정비하여 KOLAS 공인 생물자원은행을 확보할 예정이며, 뇌연구자원을 전주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·제공하는 전문포털인 K-Brain Net을 개발하여 2024년에 시범 오픈할 계획이다.
- 또한 한국뇌은행은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뇌연구자원을 확보·관리·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“뇌은행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윤리강령, 책임운영지침 및 뇌연구자원 관리지침” 마련하여 보급한 바 있다.
- 김세훈 한국뇌은행장은 “이번 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을 통해 뇌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뇌연구자원 분양뿐만 아니라 뇌연구자원을 전략적으로 확보, 활용할 수 있는 연구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커뮤니티형 연구지원 서비스 체계로 도약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1. 뇌은행 지정 목적

- 「뇌연구 촉진법」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, 제16조의3에 따라 「뇌은행」을 지정하여 뇌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함

2. 뇌은행의 업무

- 뇌연구자원의 확보 · 보존 · 관리
- 뇌연구자원의 활용
-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
- 뇌은행의 운영 ·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-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
-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 · 보존 ·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

3. 뇌은행 지정조건

1) 지정단위

- ①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
- ②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

2) 인력 기준

- ①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 · 보존 · 관리 · 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
- ② 뇌은행의 운영 ·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

3) 시설 장비 기준

- ① 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 ·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
- ② 뇌은행의 운영 ·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

- (2014년) 한국뇌은행 개소(초대 뇌은행장, 지제근 서울대 병리과 교수) 및 인체유래물은행 허가
- (2015년) 제2대 뇌은행장 선임, 박성혜 서울대 병리과 교수
- (2016년) 한국뇌은행네트워크(KBBN) 출범
- (2017년) 제3대 뇌은행장 선임,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
과기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
- (2018년) KBBN 분양데스크 운영
- (2019년) KBBN 신경부검진단 자문프로그램 운영
- (2020년) 협력병원뇌은행 2개소 추가 선정(총 7개소 운영)*
*강원대병원, 서울아산병원, 세브란스병원, 전남대병원, 충남대병원, 인제대, 가톨릭대 등 7개소
- (2021년) 제4대 뇌은행장 선임, 김세훈 연세대 병리과 교수
뇌클러스터 뇌중앙은행사업 착수

붙임3

KBBN 포털 메인 화면

